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분석에 나타난 언어와 정체성의 결속성 연구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

박성원* · 신동일**

Abstract

Sungwon, Park & Dongil, Shin. 2014. 2. 28. **Investigating the Cohesiv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Use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from the Poststructuralist Perspectives.** *Bilingual Research* 54, 123-15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hesiv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use and identity construction through the multilingual experiences of an immigrant, Henry Park, who appears in '*Native Speaker*' written by Lee Chang-rae. Drawing on poststructuralist approaches as a challenge for binary distinctions such as native speaker-nonnative speaker and insider-outsider, it was argued that Henry, as might be expected of someone who speaks fluently the target language as he grew up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could not be considered as a legitimate native speaker of his target language, but rather as a language user who negotiates and reconstructs his hybrid and conflicted identities. His conflicted identities were socioculturally imposed by others and self-imposed as well. The narratives of Henry demonstrate the process of transformed identity on using the language of the other: the violent experiences,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desire, ownership, authenticity, and legitimacy, the perception of his contradictory identity, and the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his identity through retelling his stories. The analysis of this cross-cultural autobiographic narrative offers unique insights into the comprehension of the links between language and identity in hyphenated individuals.(**Chung-Ang University**)

* 제1저자

** 교신저자

【Key words】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비교문화 자서전적 내러티브(cross-cultural autobiographic narrative), 타자의 언어(language of the other), 정체성 형성(identity construction), 원어민(native-speaker)

Other words
that got me into trouble were
fight and fright, wren and yarn.
Fight was what I did when I was frightened,
Fright was what I felt when I was fighting.
Wrens are small, plain birds,
yarn is what one knits with.
Wrens are soft as yarn.
『Persimmons』 by Li-Young Lee

1. 서론

초국가 시대의 다문화, 다언어 사회는 혼종적인 언어학습자와 언어사용자 집단의 수용을 거부하기 힘들다. 그들은 이민자, 망명자, 난민, 이주노동자, 외국인유학생,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사회적 신분으로 자신이 정주하는 거주국 언어를 목표언어로 사용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 등의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지배국의 언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디아스포라(diaspora)의 수적 증가는 미래 사회가 국가, 국민, 언어의 요소에 있어서 더 이상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소유물을 공유하는 단일 집합체로만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회역사적 흐름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고정적이고 일관적인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이동과 접촉을 통해 갈라진 틈(Hogan & Hogan, 1997)을 경험한 이주민들은 민족, 국가, 식민지의 근대주의적 정체성이 아닌 불확실하면서도 유동적인 속성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다(Mercer, 1990). 이는 자아를 동질적이고 단일한 것으로 이해하던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후기구조주의적 모색(Pavlenko, 2001)이

기도 하다.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은 제2언어습득 및 관련 교육 문헌에서도 빈번히 언급되었는데, 특히 80, 90년대에 활발해진 유학, 이민, 혹은 기타 유배적 경험을 통해 모국어 이외에 제2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한 학자, 작가들의 자서전적 작품이 출간되면서 언어학습과 사용, 그리고 언어정체성 간의 관계를 학술적 논제로 발전시킨 연구물이 등장했다(Kinginger, 2004; Kramsch, 2000, 2012; McGroarty, 1998; Pavlenko, 1998, 2001, 2007; Pavlenko & Lantolf, 2000). 예를 들어, Rodriguez의 『Hunger of Memory』(1982), Hoffman의 『Lost in Translation』(1989), Kaplan의 『French Lessons』(1993), 이창래의 『Native Speaker』(1995)와 같은 작품은 이중언어, 이중문화, 정체성과 번역, 이동과 언어공동체의 소속감에 대한 문제를 학술적으로 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표적인 작품이다(Pavlenko, 1998). 작가들의 자서전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들은 단순히 그들의 경험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Linde(1993)와 Pavlenko(2001)는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자서전적 서사가 단지 문화기술지의 자료로 쓰여진 사실적 진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결정적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간과 장소의 역사, 사회, 문화적 관습을 반영한 담론적 재구성이라고 보았다. 인종, 민족, 문화, 언어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하이픈(hyphen) 위에서의 삶을 경험했던(Alexander, 2001) 작가들의 경험을 성찰해보면 제2언어 학습 역시 단순히 규범화된 언어지식을 차례대로 습득하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은 언어를 배우고 살아가는 역사를 종적으로 폭넓게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언어학습에 대한 역사적 시각을 부연한다(McGroarty, 1998). 제2언어교육 분야에서 문화, 언어 간의 경계에 서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언어학습자의 동기과 경험, 모국어의 손실과 제2언어습득에 대한 가변적 과정, 언어의 사회화 과정과 정체성간의 상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원천자료인 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언어교육 분야에서 연구소재로 관심을 받아 오지 못한 ‘타자의 언어를 단일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사용자’를 문학작품 속에서 주목하고 그들의 삶의 궤적을 언어사용과 정체성의 관계를 통해 분석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교포 작가인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를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이 작품은 그 동안 국내외 영문학 관련 학술 분야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다룰 때 자주 인용되었다(예: 고부웅, 2002; 구은숙, 2000; Chen, 2002; Engles, 1997; Kim, 2003; Lee, 2004; Moraru, 2009). 본 연구에서는 특히 주인공의 목표어 학습과 사용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체성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고 변화되어 가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소설의 양식을 띠고 있지만 타국에서 타자의 언어를 단일 언어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작가의 자서전적 삶은 특정 맥락에서 특정 주변 인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목표어 사용과 정체성의 변형을 탐색하는 데 있어 적합한 연구자료이다. 본 작품은 유동적이고 분열된 다중적 자아를 문학작품을 통해 바라보면서 작가와 독자에게 다중적 언어사용과 정체성 간의 관계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2.1. 후기구조주의 관점에서의 언어와 정체성

나는 오직 하나만의 언어를 가졌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단일 언어 화자이다... 이것은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내가 말해야 하는 유일한 언어이다.(Derrida, 1998. p.1-2)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를 ‘타자의 언어’라고 고백한 알제리 출신의 철

학자 데리다(1998)는 『타자의 단일 언어』(The monolingualism of the Other)라는 저서에서 지배국 언어인 불어 사용자로서 자신의 일상적 삶을 서술하고 있다. 1830년 프랑스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한 알제리는 불어가 유일한 공식 언어가 되면서 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교육에서도 강압적으로 불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배국의 언어정책은 알제리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계승되던 아랍어나 베르베르어와 같은 자국어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데리다는 부모로부터 계승받은 모국어인 아랍어가 아닌 지배국의 언어를 단일 언어로 사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어 사용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배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가된 언어에 불편함을 고백한다. 즉, 타자의 언어에 관한 소유권(ownership)과 소속(belonging)감을 의심하게 된다. 그가 말해야 하는 유일한 언어는 “오직 타자를 위해서만 불균형하게 존재하고... 타자로부터 와서 타자와 함께 머물며 결국 타자에게로 돌아가는”(1998, p.40)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불어의 사용 역시 그에게 매우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그는 불어 사용을 통해 프랑스 시민으로 수용되었다가 유대계 알제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시 프랑스로부터 시민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다시 말해 그는 불어 사용을 통해 불어를 사용하는 타자와 동일시(identification)되었지만 자신의 출신 배경 때문에 다시 타자와 비동일시(dis-identification)되는 모순적이고 비일관적인 언어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불어에 대한 역설적인 경험에 대해 데리다는 “사랑과 공격성의 충돌”(p.66)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타자의 언어 사용을 통해 고통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즐거움을 경험했다고 자백하는 그는 더 이상 타자의 언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비주체적인 화자가 아닌 셈이다.

이러한 언어적 경험은 재일조선인 학자인 서경식(2011)의 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타자의 언어인 일본어를 단일 언어로 사용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서경식은 지배국의 정책에 따라 ‘국민’이라는 틀 안팎으로 배제되고 다시 소속되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는 차별과 억압의 삶을 경험하면서 일본어 사용과 정체성 간의 역동적이지만 혼란스러운 상관성을 경험하며 일본어를 ‘식민지 지배에 의해 힘으로 덧씌워진 덧’이라고 고백한다(p.33). 1992년에 출판된 그의 『소년의 눈물』이 “뛰어난 일본어 표현”을 구사했다는 이유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때 다음과 같은 수상 인사말을 통해 일본어에 대한 그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다.

구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에서 태어난 나는 원래는 모어¹⁾여야 할 언어(조선어)를 이미 박탈당하고 과거 종주국의 언어를 모어로 해서 자라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일본어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일본어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일본어라는 ‘언어의 벽’에 갇힌 수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2011, p.61).

타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가된 언어 사용은 모국어의 상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국인이면서도 일본어를 단일 언어로 사용해야 했던 자신의 모순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모국어로서의 조선어와 모어로서의 일본어의 분열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때조차도 타자의 언어인 일본어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2011, p.63). 자신에게 체화된 민족 정체성을 타자의 언어로 표출해야 했던 그는 자신의 언어적 사유와 표현의 한계를 그의 저서를 통해 드러내었다. 그는 데리다와 마찬가지로 자

1) 서경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일본어를 ‘모어(mother tongue)’라고 칭하면서 이것을 ‘모국어(native language)’의 개념과 구별한다. 모국어는 국가가 정하고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 인민에게 주입하는 언어이며 인민을 국민으로 만들어가는 수단이다. 반면 모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에 익힘으로써 무자각인 채로 자신 속에 생겨버리는 언어이며, 일단 몸에 익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인 언어라고 구분하였다(2011, p.35).

신이 실제 경험했던 언어 정체성과 타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된 언어 행위 간의 관계를 자서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데리다도 서경석도 타자의 언어를 자신의 단일 언어로 사용하였지만, 이것이 타자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언어에 대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타자의 권력에 의해 부가된 언어 사용은 권력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임과 동시에 자신의 모국어와 전통문화를 배제시키는 폭력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모순된 경험을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혼종적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타자의 언어를 단일 언어로 구사하며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의 언어 행위는 단지 주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의식적이면서 평화로운 동화적 과정이 아니다. 자칫 고요해 보이는 지배국 언어로의 동화 과정은 타자의 언어를 단일 언어로 사용하는 대상들을 나약한 존재로 조장하는(McNamara, 2010) 폭력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조국과 타국의 경계는 인종, 민족, 피부색, 외모 등의 경계만큼이나 명시적으로 구분되며, 타자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조국과 타국의 중간지대, 즉 하이픈 위에서 살고 있는 영원한 주변인이 되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이중적이면서도 모호한 정체성으로부터 방황하며 주류로부터 소외된 삶의 형태를 선택하거나 소수자로 인식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들은 비록 타자에 의한 언어의 폭력적인 강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언어와 언어사용에 새로운 의미부여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한다. 데리다가 불어를 사용하면서 욕망과 수치스러움을 동시에 경험했던 것과 같이 모순적이고 역동적인 정체성의 변형을 포용하는 경계인들은 누구나 더 이상 조국과 타국, 주류와 비주류, 포함과 배제, 자국민과 이방인, 원어민과 비원어민, 모국어와 외국어의 이항대립적 공간의 틈에서 안주하거나 방황해야 하는 힘없는 언어소수자가 아니다.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다문화, 다언어사회의 다양한 삶의 궤적을 탐색해보면 흔히 중립적이거나 합당한 과정으로 인식되었던 타자의 언어사용과 학습의 의무에 대한 의심과 비판이 생겨난다.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은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이나 고립으로 소속감을 어디도 갖지 못하며 평생 비주류의 일원으로 위치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불편함과 이질성을 바로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다중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주체성을 발휘한다. 이와 같이 무기력과 역동성을 포섭하고, 모순적이나 일관적으로 변화하는 언어정체성은 지배국-거주국 등의 이항대립적 담론에 의해 민족적 소수자나 영원한 비원어민으로서 자신의 위치성을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언어사용자들이 포용하지 않는 속성이기도 하다. 언어정체성을 시공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으로 해석한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은 목표언어 사용자들의 언어정체성을 외부적 범주로부터 고정시키지 않고, 언어의 수행 안에서 언어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미를 다시 부여하거나 협상하고, 때로는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속성으로 인식한다.

2.2. 언어학습과 사용에 대한 자서전적 내러티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문화 간에서 ‘언어와 문화의 결합(conjuncture)’으로서 이야기되는 자아(narrated self)’를 표현하는 내러티브의 사용은 20세기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Hokenson, 1995). 그렇지만 목표어 학습과 사용에 관한 이민자들의 초기 자서전적 내러티브는 지금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20세기 초반이나 중반에 출간된 이민자들의 내러티브는 대체로 언어사용과 습득에 관한 실패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Morrow, 1997). 그들의 내러티브는 대부분 성공적인 제2언어습득의 이야기로 넘쳤으며, 이민 1세대들의 성공담을 통해 이민 후

속 세대들에게 문화와 언어의 동화를 부추기려 했던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Hokenson, 1995). 이와 같은 서구의 관례, 특히 미국의 비교문화(cross-cultural) 회고록을 변화시킨 것은 후기근대성(postmodernity)의 영향력 때문이었다(Pavlenko, 2011). 1980년대부터 페미니즘이나 비판이론에 영향을 받은 후기구조주의 응용언어학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언어학습을 언어지식의 입력과 출력의 등식으로 습득되는 지식의 총합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언어를 배우는 것을 학습자가 지역적 혹은 관계적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인종, 민족, 계층, 성 등에 의해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화(socialization)의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언어를 사용하고 배우면서 개인의 다면적인 정체성이 새롭게 해석되거나 타협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1990년대 후반부터 후기구조주의 관점은 유학생, 이민자 등의 제2언어 학습과 사용에 대한 자서전적 내러티브에 빈번하게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언어, 언어사용과 언어학습의 경험을 기술한 자서전이 제2언어교육 분야에서 독특한 연구성과를 유도하기도 했다. Pavlenko(2007, 2011)는 ‘자서전적 내러티브’가 제2언어교육 분야에서 실증주의 기반의 연구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개인의 삶과 삶에 폭넓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회고록(memoir)이나 자서전(autobiography)을 통해 나타나는 언어적 경험은 실증적 자료 기반의 연구논문에서 평면적으로 묘사되었던 언어입력과 출력, 중간언어 단계와 습득순서의 담론을 성, 인종, 계층 등의 다양한 입체적 단면 위에 위치시키고(Norton, 2000),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주체성을 행사하는 개인(Pavlenko & Lantolf, 2000)의 관계성과 개인사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폴란드 캐나다인 작가 Hoffman(1989)의 작품인 『Lost in Translation: A life in a New Language』은 작가의 이민자 생활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자서전이다. 이민자들의 언어학습과 사용에 관한 경험, 언어와 정체성 간의 관계 모색 등에 관해서 학술문헌에서도 빈번하게 인

용되는 문학작품 중 하나이다. 13살에 유대인 부모를 따라 폴란드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호프만은 그곳에서 폴란드 이름인 Ewa를 영어식 이름인 Eva로 개명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 후 그녀는 미국으로 가서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인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며 두 가지 언어와 문화 사이에 위치해 있는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성찰한다. 이 작품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호프만에게 폴란드어에서 영어로의 전환은 폴란드, 캐나다, 미국의 각기 다른 언어, 문화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서전을 통해 서로 구별되는 문화와 언어적 생활 모형을 포용한 복수의 자아 사이를 이동하는 작가, 혹은 이민자의 실생활을 보여준 셈이며(Besemeres, 1998) 이는 언어사용, 언어교육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역할모형으로 상술되고 논의될 수도 있다.

Pavlenko(1998)는 이 작품과 함께, 역시 폴란드어와 영어를 이중언어로 구사하는 언어학자 Wierzbicka(1997)의 자서전 『The double life of a bilingual』을 비교하면서 언어와 정체성의 관계를 재확인했다. 그녀는 두 작가들이 ‘재위치 시키기(relocation), 경계 넘기(border crossing), 중단(discontinuity), 이동(displacement), 이중성(duality), 중복성(doubleness), 차이(disparity), 대화의 비용어성(speech dis-ease),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과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두 언어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 타협시키고, 또 한편으론 조직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두 작가의 언어 관련 자서전은 단순히 그들의 언어학습이나 습득의 과정을 선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언어로 되어가는 그리고 언어로 존재하는 것(becoming- and being-in-language)’의 의미(p.15)를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함축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비교문화(cross-cultural) 자서전을 검토하면서 제2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성(gender)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색한 Pavlenko(2001)

의 연구도 자주 언급된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출판된 16개의 언어학습 관련 회고록과 7개의 에세이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제2언어사용과 성의 역할의 관련성을 논평하였다. 작품 안에서 제2언어학습자들은 언어와 언어학습에 관해 ‘관습화된 성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는데 여성 저자들이 그들의 언어학습을 ‘타자의 목소리의 내면화와 우정을 통한 재창조’로 표현했던 반면, 남성 저자들은 언어를 정복하기 위해 ‘개인적 성취’를 강조하는 남성적 자아를 빈번하게 드러냈다. 언어학습과 사용에 대한 자서전은 저자인 학습들에게 언어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 위치한 혼종된 자아를 반추할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언어학습 과정이 결코 객관적인 언어지식을 축적하는 쉽사리 예측가능한 동질화된 과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언어회고록은 단지 문화기술지 자료의 원천으로 다루기보다는 담론적인 구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제2언어 학습을 보다 복잡한 사회역사적 단면으로 인식하게 해 줄 것이다(Pavlenko, 2011).

그 동안 언어교육 분야에서 언어학습자 혹은 언어사용자의 주관성과 역사성은 간과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한 실증주의 기반의 연구물은 빈번히 여러 세부 영역에서 축적되었다. 그러나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의 언어적 경험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자서전적 내러티브는 언어학습자의 언어적 경험을 평면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자에 의해 폭력적으로 부가된 이항대립적 담론과 사회적 범주에 위치한 자아를 새롭게 해체시키기도 하고, 자신이 위치한 지역적 공동체 안팎에서 자신의 언어(사용)에 유희와 책임을 부여하는 주체로 독립하는 장면이 자서전적 내러티브에 자주 등장한다. 결국 자서전적 내러티브는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개인의 본질과 보편적인 규범을 의심하게 한다.

3.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다시 읽기

3.1. 타자의 언어사용에 관한 폭력적인 경험

프랑스 철학자 푸코(Foucault, 1973, p.29)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은 정상성 판단(normalizing judgement), 과학적 분류(scientific classifications), 분할 행위(dividing practices) 등의 사회적 기제에 의하여 대상화되었다. 과학적 지식, 사회적 실행이 축적되면서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를 분할하는 규범이 생겨났고 그것은 개인을 생물학적 삶, 경제적인 노동, 언어의 대상으로 객체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네이티브 스피커』의 주인공 헨리 박이 유치원에 입학하여 경험한 그의 공적인 언어교육, 혹은 그의 인식과 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헨리 박이 경험한 원어민과의 영어사용은 매우 두렵고, 위협적인 것이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나를 ‘공깃돌 입’이라고 부르곤 했다. 내 묶인 혀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비틀리는 바람에 잡음이 뒤섞인 듯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p.388).

원어민인 또래 아이들에게 ‘공깃돌 입’이라고 놀림 받은 그의 어눌한 영어발음은 영어에 관한 정상 규범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수량화하고, 표준화하고, 비교하고, 분류하고, 제재하고, 위협시키는”(Foucault, 1977, p.184) 교육은 결국 헨리 박을 비정상의 범주로 대상화시키고 언어 치료의 대상자로 지목한다.

내가 받는 특별 수업은 ‘언어교정’으로, 나는 바로 그 수업 이름을 받음에 힘들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 수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학교의 지체아들, 정신박약자들, 실패자들이었다. 말

을 더듬거나, 화를 내며 길길이 뛰거나, 바지에 오줌을 지리거나, 필요한 말을 할 줄 몰랐다(p.389).

단지 원어민과 동일한 발음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언어교정 대상자가 된 헨리 박은 ‘지체아들, 정신박약자들, 실패자들’의 집단에 소속되며 차별과 억압을 경험한다. 혀, 입술, 귀와 같이 몸에 속한 조음기관의 비정상적 장애를 찾고 범주화하는 것은 과학적 분류법이며 이는 비원어민의 몸을 쉽사리 대상화한다. 푸코(1973, 1977)가 고발한 서구 근대적 기획의 대상화 역사는 지금도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현장에서도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헨리 박과 같은 이방인들은 몸의 차이 때문에 지체아들, 정신박약자들, 실패자들과 같은 손상된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정상과 비정상, 원어민과 외국인을 이항대립으로 분할하는 횡포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인의 문제를 늘 개인의 본질적인 문제로 호도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헨리 박과 같은 비원어민의 불완전하고 어눌한 영어 구사로부터 정체성의 본질마저 곡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에 관한 폭력적인 경험은 타자에 의해 인식되는 자신의 내면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협상하는 언어정체성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리라 짐작된다. 흥미롭게도 헨리 박은 이와 같은 경험을 일종의 ‘제도적 좌절감’으로만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언어교정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제재되었지만 이것을 원어민 사회의 “호의”(p.389)로 표현했다. 그에게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언어교정’ 수업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주류와 비주류, 다수와 소수를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제도의 폭력적인 행사로 각인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호의적인 사회제도로 인식되었다. 그는 어쩌면 이미 미국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진입하면서 주류 사회의 지배적인 사유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의 경험은 “언어정책의 일방적인 부기는 전세계적인 인본주의와... 관대한 확대의

알리바이로 가장된 것”(1998, p.39)으로 인식한 데리다의 언어적 경험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데리다와 마찬가지로 헨리 박 역시 인본주의라는 가면을 쓴 폭력적인 언어경험의 객체로 위치화된 것이다.

헨리 박의 영어 사용은 처음부터 그의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아버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된 강요였다. 그에게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타자의 언어 사용, 즉 아버지의 욕망과 주류 사회의 제도적 관행으로부터 부여된 보이지 않은 폭력적인 경험이다. “언어 전문가들로부터 양육을 받아 야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p.385) 헨리 박은 결혼을 하고나서도 아내로부터 여전히 “언어를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p.26)이었다. 그의 한국식 영어는 원어민들이 사회적 규범으로 정해둔 표준적 영어사용의 경계를 늘 넘지 못했다.

성인이 되면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사용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헨리 박은 여전히 자신을 불완전한 영어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영어는 공평하지 않은 타자의 언어였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들이 백인 아이들에 의해 놀림을 당할 때 그의 영어는 아무런 권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공평하게 싸울 수단’이 아닌 것이었다.

사실 일반적인 백인 아이들을 위축시킬만한 적당한 말은 없다.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그 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 언어에는 방패가 있고, 우리로서는 공평하게 싸울 수단이 없다(p.403).

Bourdieu(1991)에 따르면 언어능력은 언어지식이 축적되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해 합법적인 화자로 어떻게 수용되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가치에 말의 가치가 실릴 수밖에 없는데(p.652) 말의 가치가 화자가 말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청자에게 자신의 말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와 분리될 수 없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는

의사소통이 성립되는 조건에 화자의 사회경제적 관계망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화된 원어민의 언어능력, 평등주의적 전제로 구성된 의사소통 행위만을 빈번하게 언급하곤 한다. 만약 화자의 말할 권리가 평등하게 분포되었다면 미국에서 공적 교육을 받고 이제 성인이 되어 미국시민으로 살아가는 헨리 박은 합법적인 영어화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늘 원어민 중심의 주류사회에서 합법적인 화자로 수용되지 못했다.

누군가를 합법적인 화자로 허용하지 않는 경계와 고립은 헨리 박과 그의 아버지에게만 부여되지 않았다. 이방인들에게 행사되는 억압적인 분할은 그들 내부의 또 다른 소수민족 출신 이방인들(아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푸에르토리코인이나 페루인)에게 전가된다. 폭력적인 언어 경험은 원어민과 비원어민과의 경계에서뿐만 아니라 비원어민이 또 다른 비원어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유지되는 셈이다.

아버지는 결국 흑인들을 내보내고 푸에르토리코인이나 페루인들을 썼다. 아버지는 '스페인계'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그들이 우리처럼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일종의 경험 법칙이 되었다. 즉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처음 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공짜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p.313)

이처럼 국가, 민족, 인종의 경제적, 혹은 사회문화적 우월감은 목표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장된 채 무기력한 개인의 정체성에 폭력적인 행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민자들에게 요구되는 타자의 언어, 그리고 언어사용능력을 판단하는 원어민 기준은 일종의 억압적 사회기제가 되어 그들의 모국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암묵적으로 배제시킨다. 지배언어만이 유의미하게 인식되고 언어에 의한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곳이라면 유학생이든, 이민자든 타자의 말에 관한 창피하고 억울하고 죽

고 싶은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2. 타자의 언어와 정체성

3.2.1. 목표언어에 대한 욕망

거주국의 목표언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는 사회적 제도나 아버지의 욕망으로부터 만들어진 타자의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아들의 유창한 영어 구사와 백인 여성을 집안의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마치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 주라고, 그것을 과시하라고, “셰익스피어 말 몇 마디”를 식은 죽 먹기로 외워 보라고 다그쳤다(p.102).

아버지는 영어로 자랑스럽게 릴리아를 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언제나 릴리아 바로 옆에 서려고 했으며, 그럴 때면 그녀가 키가 아주 크고 몸이 꼳꼳하다고 놀라곤 했다(p.109).

이러한 아버지의 열망은 헨리 박에게도 점차 투영된다. 헨리 박은 주류사회의 합법적인 일원으로 소속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 사용을 회피하고 단일언어로서의 영어를 점차 수용한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또한 거주국의 합법적인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욕망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그 애가 자신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의 감각만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내 희망이기도 했다. 하나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삶. 그래야만 아이의 반은 노란색인 넓적한 얼굴로는 얻을 수 없는 권위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

을 거 같았다.(p.489).

헨리 박은 그의 아들이 한국어와 영어의 다중 사용이 아닌 ‘하나의 목소리’로서의 영어를 선택함으로써 주류 사회에서 ‘권위와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그렇지만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보장할 것이라 판단되는 목표언어의 완벽한 구사능력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쉽사리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변형된 그들의 언어가 표준적 구술언어의 규범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표준언어 구사에 대한 욕망과 애착을 갖게 되었다. 특히 ‘원어민과 같은 발음’은 완벽한 언어구사 능력을 대변해 주는 표지로 작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 또는 타인의 어눌한 영어발음을 들을 때 알 수 없는 모멸감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한국어에는 L 발음과 R 발음이 구별되지 않는다... 나는 늘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발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경박해. 야만적이야. 내가 처음으로 대마초를 피운 뒤에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며 하던 말이 기억난다. 네 눈이 온통 끌렸구나(led, 빨강다는 뜻의 red를 잘못 발음한 것-옴긴이).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방으로 가서 눈물이 나오도록 웃어젖혔다(p.387).

나는 늘 말을 하다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 나는 지금도 가끔 little 대신 riddle이라고 말하고, vent 대신 bent라고 말한다....나는 나 자신이 늘 두 언어의 위치를 바꾸는, 융합하는 - 어쩌면 큰불을 낸다(융합한다는 말은 conflate, 큰불을 낸다는 말은 conflagrate-옴긴이)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소리를 듣고 있다. 언어들끼리는 서로 비비고 마찰하는 게 너무 많아 언제라도 불이 치솟을 위험이 있다. 마찰, 고통(각각 frication과 affliction) (p.388).

그는 한국인이자 구별하기 어려운 L과 R, V와 B의 차이에 대한 경험을 회상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눌한 발음을 조소한다. 헨리 박은 한국 이민자들이 영어를 구사할 때 모국어 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운적 간섭을 잘못된 음운 발화 혹은 부적절한 실수로 간주함으로써 원어민다움의 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원어민다운 영어음가의 완벽한 구사를 간절히 동경한다. 이러한 내면화는 한국 이민자들의 영어 뿐 아니라 다른 이주민들의 ‘비정상’적인 영어 구사에도 반영된다.

아버지와 가게 노동자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말투, 그 모든 콩글리시, 스팅글리시, 은어에 몸이 움츠러들고 창피하고 화가 났을 것이다. 말 좀 똑바로 해.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평생 궁상맞게 사는 주제에 말이라도 한번 똑바로 해 봐(p.546).

헨리 박에게 있어 원어민과 비원어민을 명확하게 가로지르는 경계는 바로 백인들이 사용하는 표준영어이다. ‘원어민성(Nativeness)’의 규범에 속박된 감정은 데리다가 누군가의 순수하지 못한 불어 억양을 들었을 때 느꼈던 불편한 감정과도 유사하다. 헨리 박과 데리다는 타자에 의해 거주국 또는 지배국의 강압적인 언어 사용을 경험하였지만, 동시에 원어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목표언어 사용에 대해 미묘하고 모순적인 욕망을 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타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부가한 언어규범으로 인해 헨리 박은 사실상 원어민에 가까운 능숙한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사용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갖지 못한 셈이다.

3.2.2. 목표언어 사용의 소유권

제2언어교육 분야는 최상급의 의사소통능력을 규정할 때 흔히 ‘원어

민다운’ 특성을 나열하곤 했다.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대립적 구분은 비원어민의 목표어 구사가 늘 ‘무언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게 유도함으로써, 비원어민들에게 목표언어 사용자로서의 합법적인 언어 소유권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Kramsch, 2012).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목표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원어민과 다른 외모나 피부색, 혹은 발음과 몸 동작을 지닌 이방인들은 애당초 목표어 사용에 관한 합법성과 진정성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즉, 거주국이나 지배국에서 출생을 하거나 어려서부터 살아온 이방인들은 타자의 언어를 좀처럼 소유하기 힘들다. 헨리 박은 영어를 처음 경험했던 기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내가 1학년 때, 우리 집과 우리 언어라는 사적인 영역을 떠난 최초의 시기의 일이었다. 나는 영어가 우리 한국어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마치 다른 종류의 외투를 입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나는 언어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또는 내 혀가 처음 말을 시도할 때부터 푹푹 묵이고, 그렇게 뻣뻣해지고, 뒷에 걸려 죽어 가는 짐승처럼 몸부림칠 줄도 몰랐다. 원어민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발음하기가 힘들다(p.387).

헨리 박은 영어와의 첫 대면을 ‘낯선 외투’를 걸친 것 같이 불편하고 어색한, 그리고 원어민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으로 묘사했다. 테리 다도 이와 유사한 감정을 ‘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그러나 말해야만 언어’라고 설명했다.

나는 오직 하나의 언어를 가졌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언어를 말할 운명을 타고 났다(p.2).

타자의 언어인 불어를 단일 언어로 구사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데리다는 불어가 타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언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또한 불어를 사용하게끔 하는 강압적인 정책은 아랍어와 베르베르어와 같은 모국어를 점차 소외시키고 쓸모없는 것으로 다루었고 그런 과정이 불어사용만을 합법화시켰다. 헨리 박 역시 영어를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을 ‘우리 집과 우리 언어라는 사적인 영역을 떠난 시기’로 기억한다. 이주민인 헨리 박이 타자의 언어, 영어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모국어와 결별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무엇보다 그가 사용하는 영어는 자신에게 늘 소유권이 없고 백인 원어민, 예를 들면 자신의 아내가 사용할 때 합법적이란 느낌을 갖는다.

그녀가 정말로 말을 할 줄 안다는 것... 그녀는 단지 언어를 집행하고 있을 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 단어씩 나아갔다. 모든 글자에는 경계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크고 풍만한 입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은 어두운 집을 돌아다니며 불을 켤 수 있는 지점들을 점점이 또는 줄줄이 완벽하게 짚어 내는 사람처럼 자신의 문장들 속을 휩쓸고 다녔다 (p.33).

위 상황처럼 자신의 아내가 될 릴리아를 파티하는 곳에서 처음 만난 헨리 박은 그녀의 영어 사용을 쳐다보면서 영어의 진정한 주인을 찾아낸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와 비슷한 감정은 자신의 아들 ‘밋’의 육아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아버지인 헨리 박은 아들에게 책을 잘 읽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그러진 영어보다는 백인 원어민인 아내 릴리아의 영어가 아들에게 훨씬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막 언어에 다가서려는 아이 앞에서 허둥거리고 싶지 않았고, 단어 하나라도 더듬고 싶지 않았다. 혹시나 내가 아이에게 장애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그의 뇌 속에서 피어나는 언어를 지지리키게 만들지나 않을까 두

려웠다. 게다가 릴리아는 말하는 방법의 최고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p.396).

이와 같이 헨리 박은 영어를 첫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수십 년 사용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영어 사용에 관한 소유권을 느끼지 못한다. 영어의 소유권은 자신과 같은 이방인이 아닌 아내와 같은 원어민에게 있음을 스스로 정당화시킨다. 그렇다면 타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부가된 언어를 단일 언어로 사용하는 이방인들은 언어에 대한 소유권을 의심하는 반면, 자신들의 목표언어 사용을 진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3.2.3. 목표언어 사용의 합법성과 진정성

지난 10여 년간 후기구조주의 기반의 응용언어학자들(Blommaert, 2010; Kramsch, 2012; Pavlenko, 2001)이 등장하면서 목표언어 사용자의 ‘합법성(legitimacy)’과 ‘진정성(authenticity)’ 개념을 본격적으로 문제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와 국가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는 초국가 시대에 언어의 형태, 지식 기반의 규범적 체제로 분류된 원어민, 비원어민의 이항대립적 관점이 이민자, 유학생들의 목표어 사용에 관한 합법성과 진정성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Kramsch(2012)는 원어민 집단의 규범과 외국인이 스스로 느끼는 주체성 간의 불일치를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사기꾼(imposture)같은 정체성을 소개했다. 제2언어 화자들은 제도적 공간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느낌으로 하나의 언어(공동체)에 고착되지 못하기도 하며 이처럼 자신이 합법적이지 못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갖는 것을 사기꾼 정체성이라고 이해했다. 사기꾼처럼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된 이상화된 합법적 규범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언어 사용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표언어

어 능숙도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화자가 될 수 없을 것이란 사기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미국에서 공식적인 언어교육을 받은 헨리 박은 한국어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원어민 혹은 비원어민 화자에게 영어를 구사할 때 각기 다른 상황마다 매우 상이한 감정을 갖곤 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비합법적인 의사소통자로 느끼는 과정은 이상적인 자아(idealized self)가 현실에서 부합되지 않을 때 자신 또는 타자에 의해 가해지는 그리고 담론적으로 체화된 부적절하고 비합법적인 자아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Kramersch, 2012). 이것은 자신에 대한 언어적 경험뿐 아니라 타자에서 발견되는 사기꾼 같은 언어 행위를 통해서도 인식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헨리 박과 그의 아버지의 영어사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에게 영어는 주류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자신의 진정성을 감추고 싶을 때도 빈번하게 도구적으로 사용되었다.

가끔 아버지는 거짓말을 감추고 싶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면 영어로 말을 했다(p.117).

아버지의 불완전한 심리상태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영어 표현으로 표출되곤 하였는데 헨리 박은 아버지의 진정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영어 사용을 다음과 같은 말로 대응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아는 가장 큰 말들, 학교에서나 사용하는 ‘사회경제적(socioeconomic)’이나 감지불가능한(intangible)’이니 하는 말들, 내 어지럽게 타오르는 생각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아버지에게 내뱉었다(p.118).

즉, 헨리 박이 아버지에게 내뱉은 ‘사회경제적(socioeconomic)’이나 ‘감지 불가능한(intangible)’ 것과 같은 어휘는 자신의 상태,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언어 사용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보다 능숙한 영어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없는 의견, 믿음, 감정을 표현한 셈인데, 그저 의미 없는 단어에 생기를 불어넣는 애니메이터(Animator)와 같은 역할을 한 셈이다(Goffman, 1981). 이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관계 혹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언어 행위로 해석된다. 그리고 타자로부터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되고자 하는 전략의 하나로도 여겨진다. 미국에서 공적인 교육을 받은 헨리 박은 아버지가 모를 법한 수준 높은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아버지의 불안정한 영어사용자 정체성을 압박한다. 아버지보다 수준이 높은 영어단어를 사용하는 동안 단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애를 쓴 아버지와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은 주류 사회에서 더 높은 권력의 위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자의식을 축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구분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어적 도구로 사용된 그의 영어는 아버지의 영어만큼이나 진정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가 아무리 능숙한 언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그의 영어사용에 합법성과 진정성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영어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닿을 수가 없다. 내가 피터의 나이 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단순한 한국어로 그에게 대꾸를 하고 싶다. 거리와 고개를 숙이는 절로 이루어진 우리의 말쑥한 언어로, 그 언어라면 진짜 비밀들을 천천히 불러낼 수도 있고, 천천히 드러낼 수도 있다(p.452).

우리말로 뭔가 말해 그녀를 놀라게 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내 목 안에는 불러올릴 것이 없다. 형편없는 억양의 말을 더듬거려

여자를 실망시킬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만일 내가 문장을, 제대로 된 단어를 말할 수 있다면, 그녀에게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물어 볼 것이다 (p.515).

헨리 박은 그가 존경하는 인물인 존 강의 아들에게 또는 한국식당에서 만난 한국인 종업원에게 한국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영어보다도 훨씬 충분하지 못하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 타자의 언어인 영어로는 ‘그가 하고 싶은 말에 닿을 수가 없고’, 나의 언어인 한국어로는 이미 ‘불러올릴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형편없는 억양의 말을 더듬거리 여자를 실망시킬까’ 두려운 수준이었다. 헨리 박은 자신의 삶과 일상적 관계에서 자의식을 투영시킬 수 있는 진정성과 합법성의 언어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지 못했다. 헨리 박은 존 강의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 사용을 바라보며 강한 동경과 열망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어 단어는 주로 존 강을 통해서이다.

훨씬 낮은 그래, 자네!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게 어떤가? 허락하겠네. 나를 나이 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어서, 자네의 말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라도 나를 쳐 봐. 여기는 미국이야. 우리는 그럴 수 있어. 필요하다면 영어로 말해 봐. 다 내놓고 얘기해(p.492).

헨리 박은 영어와 한국어를 적절한 맥락에서 자유롭게 구사하는 존 강이야말로 진정성과 합법성을 갖춘 영어와 한국어 구사자라고 인정할지 모른다. 그에 반해 헨리 박은 자신의 영어 구사능력이 한국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영어를 제1언어로 자신감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어와 동등한 수준으로 진정성이 결핍된 언어로 인식한다. 헨리 박은 이주민들이 갖는 혼종의 정체성이 두 언어의 능력만큼이나 균등하게 구축된 듯한 존 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는 느

껴보지 못한 존경심마저 갖는다.

그는 둘 사이에 배를 타고 온 모든 사람들처럼 그 언어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순간에 그가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내 귀에 다른 영어의 가락이 들릴 때마다, 나는 지금도 속이 조금씩 무너지곤 한다... 나에게 단지 새로운 억양이나 음조가 아니라, 새로 온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옛 음악으로, 갈망과 희망이 울려 퍼지는 음악으로 말을 한다. 존 강은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p.498).

두 언어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존 강의 모습은 그에게 ‘갈망과 희망이 울려 퍼지는 음악’과 같이 감동적인 것이었다. 어쩌면 존 강을 통해 헨리 박은 충돌하기만 한, 혹은 언제나 결핍된 두 언어의 소유자로서 언어 간의 협상적인 진정성과 합법성을 처음으로 성찰한 셈이다.

3.3. 모순된 정체성에 대한 인식

타자의 언어에 대한 소유권과 진정성이 헨리 박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영어 사용의 중요성과 유의미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또 한편으로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동화주의적이며... 추하고 또 반은 맹목적인 로맨스의 일부”(p.489)라고 표현했다. 헨리 박은 타자의 권력을 통해 구성된 주류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그 사회로 동화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의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방황하고 갈등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데리다가 그의 언어에 대해 가졌던 역설적 관계와도 매우 유사하다. 데리다는 불어만큼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어 화자가 될 운명을 저주하기 보다는 축복하는 게 더

났다고 고백하였다. 데리다와 마찬가지로 헨리 박에게 영어는 불편하고 위협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한 즐거운 욕망이기도 했다. 기쁨과 고통을 공존시키는 역설적인 경험은 헨리 박이 의식적으로 폄하하는 듯한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회한과 동경을 유지시킨다.

한때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절대 살아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타오르는 언어 같은 것들을 물려받았을까 봐 걱정했던 것이다(p.467).

그는 백인 아이들에 의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들을 회상하며 왜 자신이 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시도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그에게 한 때 모국어였던 한국어는 ‘쓸모없이 타오르는 언어’였다. 그러나 헨리 박은 뒤늦게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에 이렇게 집착하곤 한다.

이제는 또 나의 옛 모국어를 잃어버렸다. 머나먼 땅의 산비탈에 두고 온 조상의 무덤, 아무도 축복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지 않는 외로운 비석을 잃어버렸다(p.458).

‘산비탈에 두고 온 조상의 무덤’은 그가 의식적으로 내던진 외로운 뿌리, 즉 자신의 모국어임을 인정한다. 두 언어의 간극에서 느끼는 갈등과 혼동은 그로 하여금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언어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그는 데리다와 마찬가지로 주류 사회로의 소속과 문화와 언어의 동화를 이끄는 지배국으로 수용을 간절히 희망하면서도, 거부와 배제, 그리고 보다 더 명백한 소외를 이끄는 지배국에 소속되지 못할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기도 한다. 결국 타자로부터의 수용과 배제는 한국어와 영어 구사자로서의 헨리 박의 정체성 구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모두 포용한 헨리 박은 두 언어를 모두 수

용하지도 못했지만 이와 동시에 모두 거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헨리 박뿐만 아니라 데리다가 타자의 언어 사용에 대해 갖은 “사랑과 공격성”의 모순적이면서도 역설적인 언어 경험은 이항대립을 즐겨 사용하는 근대적 사유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McNamara, 2010).

3.4. 타자의 언어사용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

헨리 박은 타자의 언어사용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된 언어에 관한 사회적 규범과 범주를 해체시키고자 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민자로서 거주국의 언어인 영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언제나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체한다. 그의 내면을 차지하며 자신의 실존을 형상화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배적 정체성을 해체하는 작업은 경제적인 성공만을 좇아 외로운 이주민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는 이곳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빈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하는 야망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재편성하고 자신이 원하는 인간을 다시 발명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540).

한국에서 높은 학벌을 가졌던 헨리 박의 아버지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청과상을 하며 오로지 부만 축적하는 헌신적 삶을 선택했다. 그에게 아들의 유창한 영어 구사와 백인 며느리의 소유는 자신에게 실현불가능하게 느껴진 주류 사회 진입의 대리적 체험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헨리 박은 수동적이거나 가치 없게 보이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뒤늦게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 미국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던 언어와 문화에 빈약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것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야망을 재조정하였음을 알게 되

면서 헨리 박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좁히고자 한다.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욱 능숙하게 구사하는 헨리 박의 모습은 아버지가 그토록 꿈 꾀 왔던 삶의 실현이었던 것을 안 것이다.

내가 내 삶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그의 꿈-어딘가에 들어가 몸과 혀로 원어민의 언어를 구사해도 외면하며 아무도 문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게 실현된 모습인데(p.541).

그러나 위의 인용처럼 이것은 ‘원어민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는 ‘어두운 실현’이기도 하였다. 자신의 암울한 언어적 경험은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킴과 동시에 아버지의 언어,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갈망을 한껏 부추기게 하였다.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거 같다. 아버지의 언어, 늘 맹렬하게 돌진해 나가는 그 언어의 충돌과 강타와 중단. 나는 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아버지의 언어를 들어 보기 위해 언제까지나 귀를 쫓긋거리며 다닐 것이다(p.546).

이제 헨리 박에게 아버지는 내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자신의 고귀한 민족 자산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언어와 ‘충돌’했던 기억은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에 모두 중단되었다. 이와 동시에 성공한 이민자의 표상이었던 존 강이 주류사회의 정치권에서 몰락하자 헨리 박은 어느 집단에도 합법적으로 소속되지 못한 채 주변부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재확인한다. 즉, 누군가에 의해 잘 길들여진 듯한 모범적인 소수민족 구성원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두 나라, 두 언어, 두 문화의 간극에서 살고 있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자신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헨리 박은 두 세계의 불분명한 경계

선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모순적인 정체성과의 화해를 다음과 같이 시도한다.

그녀는 아이들이 모두 훌륭한 시민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머릿속에 아이들 이름을 적는다. 그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아이들 이름을 적는다. 그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아이들 이름을 부른다. 고저와 억양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그녀가 원주민의 아름다운 언어 여남은 가지를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 주는 그 어려운 이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p.565).

헨리 박은 아내 릴리아의 영어수업을 돕는다. 그의 내내는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외국인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어린이들의 이름을 영어식이 아닌 그들의 언어로 발음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들은 타자의 언어로서가 아닌 그들의 모국어에 갖고 있는 발음과 억양으로 이름이 불러질 때 온전한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사건은 헨리 박의 변화된 언어정체성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사건이다. 헨리 박에게 있어서 거대한 도시 뉴욕은 더 이상 영어만이 지배적인 권력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다. 이제 뉴욕은 다양한 언어의 공존이 모색될 수 있는 또 다른 곳이다. ‘수용 가능한’ 행위로서의 제재가 단지 자아를 배제한 채 단일한 미국인 기준으로 재생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이민자들의 변형(Moraru, 2009)이 허락될 수 있음을 헨리 박이 확인한 것이다. 또한 헨리 박은 자신이 경험한 모순과 갈등이 바로 단일 언어로서 타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신과 아버지로부터 계승된 한국-한국인의 정체성 간의 간극에서 발생했음을 자각했고, 이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다중언어 사용자의 정체성을 스스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4. 결론

본 연구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주인공 헨리 박을 통해서 언어와 정체성의 결속적 관계를 탐색했다.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영어를 공식적으로 첫 대면하였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이민자 생활, 스파이로서의 삶, 백인 원어민 여성과 결혼, 아들의 죽음, 존경했던 인물 존 강과의 만남과 언어치료사인 아내를 돕는 일 등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타자의 언어사용에 대한 다양한 삶의 흔적을 남겼다. 비록 그는 강요에 의해 타자의 언어를 자신의 단일 언어로 사용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 이민자의 삶을 수동적으로만 수용하지 않았다. 거주국의 언어 사용, 원어민의 규범과 같은 지배적 언어 이데올로기는 이주민들에게 목표언어 사용에 대한 소유권과 합법성 혹은 부모로부터 계승된 모국어 말할 권리조차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헨리 박은 관습의 틀에 갇힌 자신의 정체성을 때로는 해체하면서 혼종의 모순적 정체성을 기꺼이 감수하고 수용하기도 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온 헨리 박의 부모에게 미국은 모든 변화와 성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희망의 땅이었다. 그러나 인종, 민족, 사회적 계층, 지리적 출신지, 정치적 편향, 성과 같은 구분에 따라 개인이 각기 다르게 수용될 수 있는 곳은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가 쉽사리 예측되지 않는다(Kramtsch, 2012). 특히 이방인들에게 부여되는 언어사용의 합법성과 진정성은 단지 개인이 습득한 목표언어의 구사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그(녀)가 주류 사회에서 얼마나 합법적인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즉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타자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Bourdieu, 1993, p.331)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한 헨리 박의 서사적 삶을 단지 이민자 개인의 사소한 언어경험으로만 볼 수 없다. 물론 주인공 헨리 박의 언어적 경험이 그에게 일어난 고유한 사건이었지만, 좀 더 보편적인 주제, 혹은 다른 이민자

집단으로 전이하거나 확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의 삶의 궤적은 다문화, 다언어 사회로 이동하는 한국인의 사회에서 눈에 띄는 언어소수자의 언어 권리와 목표어 사용에 대한 논제로 전환될 수 있다. 헨리 박이 경험한 사기꾼과 같은 감정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주류와 비주류, 국민과 이방인, 조국과 디아스포라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수많은 근대적 범주 역시 의심하게 한다. 혼종적인 언어문화 공동체가 증가할수록 거주국의 목표언어는 더 이상 동일한 인종, 민족, 계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다. 원어민 화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언어 사용에 관한 합법성과 진정성의 개념은 초국가적 유동이 자유롭게 허락되는 지금 시대에 다수의 이주민들을 목표언어 사용에 관한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라면 다중적 언어 자원을 지닌 언어사용자 혹은 언어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복수 언어에 관한 소유권과 합법성을 각기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타인종, 타문화, 타언어의 지속적인 유입은 여러 모양의 공동체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들을 수용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변형되고 확장된 언어공동체가 된다(Lave & Wenger, 1991). 본 연구는 언어공동체에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주목하면서 다중공동체의 변형적인 본질을 탐색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서전적 내러티브 연구방법이 제2언어교육 분야에서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 화자들의 정체성, 모국어의 유지, 목표어 학습과 사용과 같은 논제에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실증적 자료 기반의 언어교육 연구물 역시 폭넓게 실행되어야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출판된 문학작품 기반의 자서전적 내러티브를 다시 읽고 비평하면서 (언어)정체성, 언어권리, 언어생태성과 같은 학술적 논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는 어쩌면 언어, 문화, 문학, 교육 등의 분리된 학술적 지경을 새롭게 연계시키는 새로운 인문 연구의 전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고부웅(2002). 이창래의 ‘원어민’-비어있는 기표의 정체성, <영어영문학> 제 48권 3호, 영어영문학회. 619쪽~638쪽.
- 구은숙(2000). 문화/인간 옛보기-‘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인생 스펀이로서의 작가, <현대 영미소설> 제 7권-1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47쪽~64쪽.
- 서경식(2004). 『소년의 눈물』. 이목 옮김. 돌베개: 파주.
- 서경식(2011). 『언어의 감옥에서』. 권혁태 옮김. 돌베개: 파주.
- 이창래(1995). 『네이티브 스피커』. 정영목 옮김. 나무와 숲: 서울.
- Alexander, J.(2001). Theorizing the “modes of incorporation”: Assimilation, hyphenation, and multiculturalism as varieties of civil participation. *Sociological Theory*, 19(3), 237-249.
- Besemeres, M.(1998). Language and self in cross-cultural autobiography: Eva Hoffman’s “Lost in Translation”. *Canadian Slavonic Papers*, 40(3), 327-344.
- Blommaert, J.(2010). *The sociolinguistics of globalization*, Cambridge: CUP.
- Bourdieu P.(1993).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Chen, T.(2002). Impersonation and other disappearing acts in Native Speaker by Chang-Rae Lee. *Modern Fiction Studies*, 48(3), 637-667.
- Derrida, J.(1998).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P. Mensah, Tran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Engles, T.(1997). Visions of me in whitest raw light: Assimilation and doxic whiteness in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A Journal of Asian American Cultural Criticism*, 4(2), 27-48.
- Foucault, M.(1973). *The birth of the clinic: An archaeology of medical perception*. London: Tavistock.
- Foucault, M.(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 Goffman, E.(1981). *Forms of Talk*.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fman, E.(1989). *Lost in Translation. A life in a New Language*. New York: Dutton.
- Hogan, R. & Hogan, J.(1997). Introduction: cross-cultural autobiography. *a/b: Auto/biography Studies*, 12(2), 149-50.
- Hokenson, J.(1995). Intercultural autobiography. *a/b: Auto/biography Studies*, 10(2), 92-113.
- Kaplan, A.(1993). *French Less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nging, C.(2004). Bilingualism and emotion in the autobiographical works of Nancy Huston.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5(2), 159-178.
- Kim, D.(2003). Do I, Too, Sing America?: Vernacular Representations and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6(3), 231-260.
- Kramersch, C.(2000). *Linguistic identities at the boundaries*. Paper presented at the AAAL Annual Convention, Vancouver, Canada, 12 March.
- Kramersch, C.(2012). Imposture: A late modern notion in poststructuralist SLA research. *Applied Linguistics*, 33(5), 483-502.
- Lave J. & Wenger, E.(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Chang-rae(1995).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 Lee, R.(2004). Reading Contests and Contesting Reading: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and Ethnic New York.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Multi-Ethnic Literature of the United States*, 29(3). 341-352.
- Linde, C.(1993). *Life stories: The creation of cohe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Groarty, M.(1998). Constructive and constructivist challenges for applied linguistics. *Language Learning*, 48(4), 591-622.
- McNamara, T.(2010). Reading Derrida: Language, identity and violence. *Applied Linguistics Review*, 1, 23-43.
- Mercer, K.(1990). Welcome to the jungle: Identity and diversity in postmodern politics. In: J. Rutherford (ed.), *Identity: Community, culture and difference*, pp. 43-71. Lawrence & Wishart London.
- Moraru, C.(2009). Speakers and sleepers: Chang-rae Lee’s native speaker, whitman, and the performance of Americanness. *College Literature*, 36(3), 66-91.
- Morrow, N.(1997). Language and identity: Women’s autobiographies of the American immigrant experience. *Language and Communication*, 17(3), 177-185.
- Norton, B.(2000). *Identity and language learning: Gender, ethnicity, and educational change*. London: Pearson Education.
- Pavlenko, A., & Lantolf, J.(2000). Second language learning as participation and the (re) construction of selves in J. P. Lantolf(ed.): *Sociocultural theor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Recent advan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55-177.

- Pavlenko, A.(1998). Second learning by adults: testimonies of bilingual writers. *Issues in Applied linguistics*, 9(1), 3-19.
- Pavlenko, A.(2001a). Language learning memoirs as a gendered genre. *Applied Linguistics*, 22(2), 213-240.
- Pavlenko, A.(2001b). In the world of the tradition, I was unimagined: Negotiation of identities in cross-cultural autobiograph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5(3), 317-344.
- Pavlenko, A.(2007). Autobiographic narratives as data in applied linguistics. *Applied linguistics*. 28(2). 163-188.
- Rodriguez, R.(1982). *Hunger of memory*. New York: Bantam.
- Wierzbicka, A.(1997). The double life of a bilingual: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M. Bond (Ed.), *Working at the interface of cultures: Eighteen lives in social science*. London: Routledge.

박성원(Park Sungwon)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전화번호: 02-820-5095

전자우편: cello0128@cau.ac.kr

신동일(Shin Dongil)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전화번호: 02-820-5098

전자우편: shin@cau.ac.kr

접수일자: 2013년 12월 15일

심사(수정)일자: 2014년 1월 22일

게재확정: 2014년 2월 5일